



그림책은 내 친구 021

누구 발일까?

독후활동지



정해영 글·그림 / 48쪽 / 13,000원

어린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신발을 소재로
각각 모양과 특징이 다른
세계 신발을 보여 주는
정보그림책

활동 목표

1.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그림에 등장하는 건축물을 알 수 있다.
3.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 보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책 읽기 전 활동

👉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내 신발은 어떤 옷과
가장 어울리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신발은
어떤 날씨에 가장
어울리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신발의 이름은

예요

내 신발의 걸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내 신발은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줄까요?

신고 싶은 신발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만의 의성어로 신발 소리를 표현해 보아요.
의성어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말도 넣어 보고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예>

철벽철벽 질퍽질퍽한 진흙길도 문제없어.

어울리는 말 : 절벽절벽, 철버덕철버덕, 철퍼덕철퍼덕

어울리지 않는 말 : 사각사각, 주룩주룩, 또각또각, 따각따각

---> 쁘드득쁘드득 차가운 눈도 밟을 수 있어.

☞ 나만의 의태어로 신발의 모양을 표현해 보아요.
의태어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살짝살짝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콩콩콩 발끝으로 걸어가.

어울리는 말 : 살금살금, 조심조심, 슬쩍슬쩍, 슬몃슬몃

어울리지 않는 말 : 달각달각, 두벅두벅, 타박타박

---> 나풀나풀 노오란 나비들이 사뿐사뿐 빠알간 꽃밭에 앉았네

**** 참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말을 흉내낸 말이에요.

달각달각(달가닥달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뽀드득뽀드득 : 단단하고 질기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자꾸 야무지게 문지르거나 비빌 때 잇따라 나는 소리

뚜벅뚜벅 : 발자국 소리를 뚜렷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소리 또는 모양

사각사각 : 눈이 내리거나 눈 따위를 밟을 때 잇따라 나는 소리

저벅저벅 :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

주룩주룩 : 굵은 물줄기나 빗물 따위가 빠르게 자꾸 흐르거나 내리는 소리 또는 모양

철벅철벅(철버덕철버덕) : 열은 물이나 진흙 같은 곳을 자꾸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

철컹철컹(철커덕철커덕) : 크고 단단한 물체가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출렁출렁 : 물 따위가 자꾸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에요.

강충강충(강중강중) :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나풀나풀(나불나불) :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자꾸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반짝반짝 :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뽀족뽀족 :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로운 모양

사뿐사뿐 :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잇따라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모양

살짝살짝 : 남의 눈을 피하여 잇따라 재빠르게

알록달록 :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

울긋불긋 : 질고 열은 여러 가지 빛깔들이 야단스럽게 한데 뒤섞여 있는 모양

잘근잘근 : 질기한 물건을 가볍게 자꾸 씹는 모양

폭신평신티 : 매우 포근하게 보드랍고 탄력이 있는 느낌

타박타박 :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어떻게 표현해야 자연스러울까요?

모자를 _____

신발을 _____

양말을 _____

바지를 _____

코트를 _____

장갑을 _____

섶매를 _____



제시어

쓰다 입다 끼다 신다 타다

책 읽고 활동하기

☞ 책에 나오는 신발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발에 맞는 이름을 찾아 주세요.



● 곶뜰



● 꽃신



●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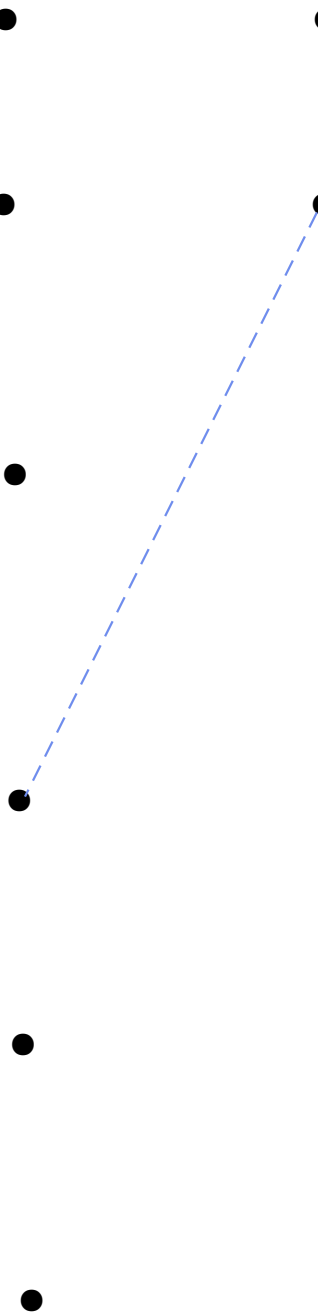
● 예메니



● 보타



● 나막신



☞ 세계 여러 나라는 자연환경과 문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전통 의상을 발전시켰어요. 발에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도 각 나라별로 특색이 있어요. 관련 있는 옷과 신발을 연결해 보세요.



☞ 사는 곳에 따라 신발이 달라져요.

네덜란드는 나라 땅의 4분의 1이 바닷물의 표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늘 땅이 질퍽질퍽 하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_____를 많이 신었어요. 포플러 나무와 버드나무 가지가 이 신발을 만드는 주요 재료이지요.

알래스카와 북아메리카에 사는 이누잇은 차가운 눈과 얼음에서 발을 보호하는 _____이란 신발을 신어요. 발과 발목을 모두 감싸도록 목이 긴 신발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다표범이나 순록 같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지요.

터키 사람들은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 데다, 하루에 다섯 차례나 예배를 보기 때문에 신발을 자주 벗어야 해요. 그래서 뒤가 트여 신고 벗기 쉬운 _____를 즐겨 신어요. 이 신발은 코가 길고 구부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 좀 더 알아볼까요?

플라멩코는 에스파냐의 전통 춤이에요. 일본은 풍요를 기원하는 가부키 춤을 추었고, 중국은 새해를 맞이하거나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사자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각 나라별로 고유한 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강강술래와 탈춤과 같은 전통 춤이 있어요.



일본의 가부키



중국 사자춤



한국 강강술래

터키는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어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의 하나랍니다. 세계 4대 종교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를 말해요.



이슬람 사원 모스크

☞ 세계의 신발을 보다 보면 다른 나라 어린이와도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린이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정해서 써 보세요.

_____에 사는 어린이에게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